

2011년, 녹색성장의 파트너 ESCO

지난 10월 20일 'ESCO산업 활성화 방안'이 발표됐다. 이제 ESCO 사업이 산업으로 가는 전환점을 맞이하게 된 것이다. 앞으로 펼쳐지게 될 ESCO 시장 확대 및 금융지원 강화, 업계 경쟁력 제고 등 2011년 ESCO 사업에는 밝은 보름달이 떴다. 내년부터 기존과는 달리 급격하게 변화하고 성장하게 될 ESCO 산업의 미래에 대해 권오정 과장을 통해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Q 지식경제부 에너지절약정책과에 대해.

A 정부는 작년 7월말('09.7.27) 강력한 에너지절약 시책의 추진을 위해 지식경제부내에 에너지절약추진단을 신설하였다. 에너지절약정책과는 에너지절약 정책의 총괄부서로, 우리 경제가 안정적인 에너지수급을 이룰 수 있도록 에너지절약 정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ESCO 사업 육성, 에너지절약 홍보, 공급자 수요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Q ESCO산업 활성화 방안(10.20) 발표의 의의 및 향후 계획에 대해.

A 'ESCO 산업 활성화 방안'은 ESCO 산업 진흥을 통해 녹색성장 국가목표를 달성하고, 고용창출과 수출을 제고하는 신성장동력을 육성하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가 담겨 있다. 정부는 ESCO 시장 확대 및 금융지원 강화, 업계 경쟁력 제고 등을 통해 2015년까지 시장규모 1조원과 고용 1.7만명 창출을 달성하고 수출이 가능한 성장동력 산업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향후 본 방안의 실행을 위해 예산확보 및 제도개선, 공제조합 설립 등 제반 사항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는 한편, 업계 의견을 수렴하여 새로운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다.

Q 2010년과 달리 2011년 ESCO 사업 시행 시 변동사항에 대해.

A 공공기관의 경우 2011년부터는 시장창출을 위해 1만m² 이상 건물보유 공공기관(1080개)은 진단결과 5% 이상 개선, 회수기간 10년 이하 시 ESCO 추진이 의무화된다(총리지침 개정). 공제조합의 경우 보증요율 0.5% 이하의 보증보험을 제공하는 ESCO 공제조합이 신설되어 신용



권오정
지식경제부
에너지절약정책과장

도가 낮아 자금조달이 어려운 중소기업의 자금공급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한다. 예산확대의 경우 융자예산 전환 및 증액을 통해 ESCO 정책자금을 '10년 1,350억 원에서 2011년 4,500억 원으로 대폭 확대하고,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 1,500억 원 규모의 'ESCO 펀드'를 조성하여 2010년의 4배가 넘는 총 6,000억 원의 ESCO 금융지원이 제공될 예정이다. 경쟁도입부분에서는 정책자금 배정 시 절약효과, 성과보중, 민간투자, 대·중소 상생지표 등을 평가하고 선별 지원하여 전문화·대형화 유도한다. 기업별 한도(500억 원)를 폐지하고 대·중소 컨소시엄(대형 ESCO, 전문 ESCO 간)을 통한 대형사업을 우대하여 서비스중심 대형화 지향하며, 우수 ESCO 지정제도를 '전문 ESCO 지정제도'로 개편하고 전문 ESCO일 경우 정책자금 지원 시 우대하여 기술중심 전문화를 지향할 계획이다.

Q 대기업 ESCO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의견에 관해.

A 기존에는 ESCO 사업자가 대·중소 기업인지에 따라 30:70의 지원비율을 적용하였으나, 향후 ESCO 사업은 사업자가 아닌 사용자 관점에서 대·중소 기업을 구분하여 안배하게 된다. 또한, 기업별 한도(500억 원)가 폐지되고 정책자금이 대폭 확대되어 대기업은 기존에 비해 사업기회가 확대되는 효과가 있다.

Q ESCO 인력 운용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 업체별로 기술 인력 교육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한다면?

A 그간 열악한 ESCO 사업자의 인력확보 및 기술인력 양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산업공정, 열·전기, 경제성분석, 금융 등 종합적 관점에서 에너지절약 시스템 설계와 사업개발이 가능한 고급 컨설팅인력을 양성할 계획을 갖고 있다. 또한 에너지효율과 관련된 산업 인력양성센터 교육 과정을 기업수요를 반영하여 실무 교육과정으로 개편할 계획이다. 이러한 지원방안에도 불구하고 업계에 필요한 모든 인력을 정부에서 양성할 수는 없으며, 이에 대한 협회 및 각 기업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Q 에너지절약정책과의 그 동안의 성과와 의미에 대해.

A 2009년은 수요대책 발표(6월), 에너지절약추진단 신설(7월) 등의 기반을 마련하여 작년 12월 협약을 체결하면서 에너지 목표관리제 시범사업을 추진하였다. 금년 목표관리제 시범사업을 통해 산업부문 국가절약목표 120만TOE를 초과하는 132만TOE의 절약목표를 설정하였다. 금년 4월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이 시행되면서,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로 통합 운영되어 동 시범사업은 국가 전반의 에너지를 절약하고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기반이 되었다. 또한, 2010년은 'ESCO 산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여 ESCO 산업이 신성장동력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하기도 했다.

Q 에너지절약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업계나, 에너지사용자에게 당부 한 마디.

A 2011년은 ESCO 산업이 기존과는 다르게 급격히 성장하는 한 해가 될 것이라 생각된다. 정책자금 확대, 공제조합 등으로 ESCO 시장이 양적으로 성장함과 동시에, 경쟁체제가 도입되어 ESCO 사업의 질적 성장도 이루어질 것이다. 업계에서도 ESCO 사업이 자생력을 갖고 신성장동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민간투자를 활성화하여야 하며, 해외진출을 통해 새로운 시장을 개척해야 한다. 제도적 기반을 갖추는 것은 정부이나, ESCO 산업의 주체는 ESCO 기업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선진화된 시장 환경을 만들고 정부 지원이 아닌 자생력을 갖춘 산업이 될 수 있도록 부단한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란다.